

현장시선



변순자
소비아교육중앙회제주특별자치도지부

'금방 괜찮아지겠지!' 하던 코로나19 사태가 우리의 일상을 점령한지 많은 시간이 흘렀다. 예상치 못한 길어짐에 당장 눈에 드러나지 않지만 먼 미래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져서 걱정이다. 수능을 준비하는 고3만의 문제가 아닌 말 못하는 어린이들의 교육도 문제다.
며칠 전 친구의 손녀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4살 손녀는 신체 건강하고 말도 어느 정도 해서 언어발달 관련해서는 큰 걱정을 안 했다고 한다. 그런데 어린이집에서 하는 영유아진단에서

코로나19 사태로 걱정되는 아이들

언어발달 지체로 나왔다. 걱정하다 진찰을 받으러 갔는데, 예약이 밀려 있어서 그냥 돌아왔다. 6개월 후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니 어린이들의 언어발달 문제가 심각함을 짐작할 수 있다. 그런데 언어발달이 늦어진 이유가 더 놀라웠다. 모두가 마스크를 하고 있어서 유아들은 입모양이나 표정을 잘 알 수 없어 언어를 못 배운다고 한다. 지금까지는 그저 아이들의 말이 느린 것은 엄마들이 TV와 핸드폰을 많이 보여줘서 그런 줄로 알았다. 마스크 때문에 입모양을 못 보는 것의 문제를 생각해보지 못했다. 친구의 얘기를 들으며 이젠 언어만의 문제가 아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도 혹시 언어발달이 늦어지면서 손녀의 두뇌발달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며 걱정을 했다. 사실 유아들은 말을 익히기 위해 말하는 사람의 입 모양을 보며

반복하고 연습을 해야 익힐 것이다. 어느 날부터 그 자연스런 것들이 모두 차단된 채, 후속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다.
모든 교육은 때가 있고 그 시기에 맞는 것들을 자연스레 배우면서 자라나야 하는 것인데, 코로나19 사태가 일상의 그런 것마저 가로막아 버렸다. 모두들 마스크를 하고 등원하고, 거리두기 때문에 모두 떨어져서 놀아야 한다. 교사들도 모두 마스크를 하고, 표정 없는 하얀색이나 검정색이 얼굴을 거의 덮고 있으니, 어떻게 보면 무섭기도 할 것이다. 이러한 것들은 영유아만의 문제가 아니라 초등 저학년 아이들에게도 친구를 사귀고 사회성을 키우는 데 있어서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또한 초등 저학년생들은 학력저하로 한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늘어나 한글 선생님을 지자체에서 투입했다 한다. 미래의

인재를 키워나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는 것은 잘하는 일이다.
어린 시절의 정서적인 불안의 문제는 평생을 두고 어떤 심리적 결손 문제로 나타날 것이 분명하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 등교하고 귀가하는 것으로만 별 일이 없으면 되는 것으로 생각했던 안 될 일이다. 어린 아이들의 교육시설엔 방역을 더 철저히 해서 마스크 없이 머물며 지낼 수 있는 방법이 고려돼야 한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프로그램이 아닌 현재 상황에서 아이들의 성장을 도와줄 새로운 프로그램이 절실하게 필요한 때이다. 1인 교사가 담당하는 아이들 숫자를 적게 해 웃으며 안아주고, 말도 건네고 아이들을 다독여야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끼며 건강하게 자랄 것이다. 엄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따뜻한 감정을 표정으로 느낄 수 있으면 좋겠다.

사설

밀려드는 미국산 감귤, 대응책 마련해야

제주 감귤농가에 서서히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다.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이후 오픈지에 이어 미국산 감귤(만다린)도 밀려들기 시작해사다. 아직은 많은 양이 아니지만 앞으로 미국산 감귤의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낮아지면 제주감귤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산 하우스감귤과 한라봉 등 만감류 출하시기와 겹칠 가능성이 매우 높아서 더욱 그렇다.
농협제주지역본부에 따르면 올해 2월 33t을 시작으로 3월 14t, 4월 42t, 5월 13t 등 102t의 미국산 감귤이 국내로 수입됐다. 감귤 수입은 한·미FTA 발효 전인 2007~2011년 0.8t, 발효 후에는 2019년 18t이 수입된 적이 있다. 올해 수입된 미국산 감귤은 전국 유통과 대형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됐다.
올해 미국산 감귤 수입이 본격화된 것은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144%였던 관세율이 올해

는 48%까지 떨어진 영향이 크다. 미국산 감귤의 관세율은 매년 낮아져 2026년에는 완전 철폐된다. 미국산 감귤의 당도는 13~15브릭으로 제주 하우스감귤보다 높다. 또 제주 온주감귤보다 껍질이 두껍고 단단한 것이 특징이다.
물론 올해 미국산 감귤을 구입한 소비자들의 반응은 좋은 편이 아니다. 당도가 높고 신맛이 덜하며 껍질이 두꺼워서 제주감귤처럼 맨손으로 까기가 쉽지 않는 등 부정적인 평가가 더 많다. 문제는 가격 경쟁력이다. 올해 미국산 감귤의 소비자 가격은 kg당 8400원 정도다. 4월 하순부터 출하되는 제주 하우스감귤의 초기 소비자 가격은 1만원 안팎이다. 제주감귤의 가격 경쟁력이 미국산 감귤에 밀리고 있다. 향후 관세율과 대형 유통매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됐다.
올해 미국산 감귤 수입이 본격화된 것은 한·미FTA가 발효된 2012년 144%였던 관세율이 올해

열린마당

돌문화공원 야외전시물 디자인공모전



고범석
돌문화공원 학예연구사

나에게만 팔 들어 있다. 큰딸은 금속디자인 전공으로 현재 창업 준비 중이고, 작은 딸은 중3 수험생이다. 공모를 통한 경쟁과 그에 따른 포상을 공모전이라고 한다. 대회에 참가하게 되면 언제나 부담으로 자신에게 작용한다. 그럼에도 이러한 부담감을 안고도 학생들이 공모전에 도전하는 이유는 공모전이 졸업 후 취업이라는 좁은 문을 열 수 있는 등용문의 역할을 한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때문일 것이다.
돌문화공원에서 올해 처음 실시되는 야외전시물 디자인공모전 작품 접수가 다음주에 마감된다. 유능하고 참신한 신진 작가들의 공모 작품들이 많이 접수될 것을 기대하며 디자인 공모전의 핵심은 평소 우리가 지나치기 쉬운 일상적인 생각에 대한 의문과 관찰

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한다.
제주돌문화공원에는 자연석과 민구류 등 야외전시물이 1만4451점이 전시되고 있다. 돌문화공원에서 실시되는 야외전시물 디자인 공모전이 앞으로 많은 대학생들과 신진 작가들에게 상상의 나래를 마음껏 펼치는 경험의 장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세계적으로 공공디자인이 잘된 나라는 프랑스, 스페인 등을 손꼽을 수 있다. 건물 하나하나가 문화유적이 되고 할 만큼 전통이 잘 보존돼 있으면서 편리한 도시시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 수백 년에 걸쳐서 공을 들인 결과로 공공디자인이 잘된 아름다운 도시가 된 것이다. 반면에 영국의 브리스톨이나 독일의 하노버처럼 특별한 문화유산이나 개성이 없던 도시가 공공디자인에 주력하면서 단기간에 매력적인 도시로 탈바꿈한 경우도 있다.
디자인이 도시의 면모를 새롭게 혁신시키는 것처럼 이번에 실시되고 있는 돌문화공원 야외전시물 디자인공모전처럼 수준급의 다수 작품들로 인해 그 작품들을 바탕으로 새롭게 디자인될 돌문화공원의 야외전경이 몰라볼 정도로 달라진 모습을 기대해 본다.

뉴스-in

“환경 수도 걸맞는 프로세스 마련할 것”

ECO 제주 프로젝트 업무 협약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지난 7일 사회적기업인 재단법인 행복커넥트와 'ECO 제주 프로젝트' 참여·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CO 제주 프로젝트'란 1회용 플라스틱 컵의 사용을 줄이기 위해 재사용이 가능한 다화용 컵과 전용 반납기 등을 제주 내 카페에 지원 하는 사업으로, 고객이 사용이 완료된 컵을 무인 반납기에 투입하면 회수된 컵을 전용 세척장에서 세척 후 매장에 재공급하는 방식.
문대립 JDC 이사장은 “협약을 통해 환경 수도에 걸맞은 탈 플라스틱 프로세스를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고대모기자
“안전한 제주여행 알려라”
○...제주도와 제주관광협회는 9~12일 경기도 킨텍스에서 열리는 제6회 대한민국 국제관광박람회에 참가해 홍보관을 운영하고 안전한 여행 알리기에 주력.
제주 언택트 관광지와 온라인 제주여행 공공플랫폼 탐나오를

집중 홍보하고, 열쇠고리 만들기 체험도 운영해 호응.
관광협회 관계자는 “이번 박람회는 온라인과 오프라인 요소를 가미한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되며, 제주관광 홍보영상을 활용한 랜선제주여행과 도 공식 관광정보포털 비짓제주와 링크 연결로 종합정보를 제공하고 있다”고 강조.
문미숙기자
학생가장에 추석맞이 성금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9월 도내 초·중·고 학생 가장 150명에게 1인당 30만원씩 전달.
도교육청은 소속 교직원들의 봉급 중 전 원 미만 자부담 성금과 도내 기업체 및 독지가들이 자발적으로 출연한 기부금으로 조성한 작은 사랑의 씨앗 성금을 학생가장에게 정기적으로 지원.
이석문 교육감은 서한문을 통해 “도내 교직원들과 기업체, 독지가분들이 모아주신 사랑이 여러분에게 사랑과 따뜻함으로 전해지길 바란다”고 강조.
오은지기자

제주항, 제2공항 '반의반' 관심도 없다

제주항이 만성적인 선석부족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수년째 항내 각종 충돌사고와 항외 정박, 대기시간 증가 등 부작용 속출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관문항이자 국제관광항으로서의 임지를 무색케 한다. 도가 제주신항과 외항 2단계 개발사업을 선석난의 해법으로 추진중이지만 별 진전도 없 어 큰 우려다.
제주항내 선석부족에 의한 사고는 사실상 해마다 터진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올 4월엔 승객 239명을 실은 여객선이 입항중 해상소속 함정을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아직 최종 원인은 안 나왔지만 제주항 선석부족때문이란 의견이 지배적이다. 작년 9월에도 폐쇄선이 정박과정에서 선석 충돌로 승객 3명을 다치게 했고, 2019년엔 승객 227명을 태운 여객선이 집안중인 화물선과 충돌하기도 했다. 선박 사고 외에도 제주항 이용 여객선들이 승객·화물 하선후 외항으로

나가 대기하는가 하면 신규 여객선 취항도 제약을 받고, 선석이용 시간을 맞추려 과속 운항 사례도 제기된다. 날이 갈수록 선박·항로 증가에 대형화물 선석부족을 부채질하고, 선박과 화물의 체선·체화현상도 심각해지는 것이다. 제주항의 만성적 선석부족은 29기에 불과한 선석을 정기여객선 10척, 관광선 20척, 화물선 25척 등 55척의 선박이 이용해야 하는 통계치에서 쉽게 엿보인다. 한 선석에 2~3척의 배가 번갈아 접안하는 사태도 종종 연출한다.
도가 제주신항과 외항 조성에 나섰지만 국비확보 어려움 때문에 여전히 해법은 안보인다. 우선 의견이 지배적이다. 작년 9월에도 폐쇄선이 정박과정에서 선석 충돌로 승객 3명을 다치게 했고, 2019년엔 승객 227명을 태운 여객선이 집안중인 화물선과 충돌하기도 했다. 선박 사고 외에도 제주항 이용 여객선들이 승객·화물 하선후 외항으로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부고
김형희(제주서중 교감) 어머니 김해 김씨 순애(향년 91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8일 15시 35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9월 10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9월 11일(토요일) 오전 7시
▶발인장소: 중앙병원(이호동 소재) 장례식장 1분향실
▶장 지: 남읍리 선영
남편 김태중
아들 김형희 며느리 고지연
딸 김영자 사위 강봉오
복자 이용남
순보 김경륜
손자 김세민 손녀 김유현 승현
* 연락처: 김형희 010-2696-6920 고지연 010-9132-6920 김영자 010-2698-8440 강봉오 010-8660-3331 김복자 010-2730-1674 김순보 010-2757-4325 김경륜 010-2758-4325

부고
정중영(동의대 교수)·정윤정(성신일출 봉능협 이사) 어머니 제주부씨 인자(향년 91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9일 04시 05분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9월 10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9월 11일(토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성산읍 공설묘지 장례식장
▶장 지: 성산읍 수산리 선영
아들 정중영 며느리 김영분
딸 정윤정 사위 박영호
윤정 장영후
윤숙 상정곤
* 마음을 전하실 곳
농협 903091-52-090130(예금주 정윤정)
* 연락처: 정중영 010-5472-7792 정윤정 010-3696-5252 정윤숙 010-4692-4264

부고
오상도 어머니 창녕씨 재천(향년 91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8일 14시 00분경에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9월 10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9월 11일(토요일) 오전 8시
▶발인장소: 표선외곽관(표선면 표선리) 장례식장 2분향실
▶장 지: 양지공원
아들(오) 오상을 며느리 김길심
오상도 강경자
딸 오명자 사위 최홍도
오명순 김창진
오명희 김용국
손 오은정 손서 배상만
외손 최미순 외손서 부상일
김석재
김진환
* 연락처: 오상도 010-5898-1920 김길심 010-3026-7277 최홍도 010-2698-5953 김창진 010-6225-9129 김용국 010-3699-8828

부고
김승빈(미국 Blueprint Medicines, Head 미국 블루프린트제약 수석)·승범(기상청 과장) 아버지 김해김공 인택(국가유공자, 한국해운조합제주지부장, 좌정승공파 종친 회장, 향년 93세)께서 서기 2021년 9월 7일 22시 37분경 별세하셨기에 삼가 알려드립니다
▶일 포: 2021년 9월 10일(금요일)
▶발인일시: 2021년 9월 11일(토) 07:00
▶발인장소: 부민장례식장 2분소
▶장 지: 와흘 선영
부인(배) 김혜옥
아들 김승빈 며느리 조희정
김승범 이진아
김춘림 사위 김신태
선립 김홍식
현숙 장원석
복숙 김성찬
희숙 외손자 김강인
김지혁 김현무
김지택 장수영
김지은 김현경
김지혜 김권영
김희영 김규영
김희
* 연락처: 김승범 010-4739-7147 장원석 010-4123-2954

재산상속 한정승인 공고
·성 명: 망 강성인 (1970. 12. 28. 생)
·최후주소: 제주시 연동6길 32-1, 203호(연동)
상기자는 2021년 5월 31일 사망하였고, 그의 상속인들은 2021년 9월 1일 제주지방법원 2021년단405호로 상속한정승인 심판을 수리 받았습니다.
이에 민법 제10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채권자와 수증자는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공고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는 자는 청산에서 제외됨을 최고합니다.
- 다 음 -
1. 공고기간: 본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
2. 연 락 처: 제주시 신산로11길 7, 2층(일도이동)
2021년 9월 10일
공고인(상속한정승인자) 강 다 헤

방수 단열
우레탄
우레아
방수전문건설업
석주개발
☎ 712-3644, 782-3644
010-4690-3636